

이 땅에 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 주범은 누구인가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내외의 한결같은 우러와 반대에 불구하고 상반기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를 한사코 강행하였다.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은 이번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23일까지 11일동안 실시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중단없이 진행되며 연습기간에 20여개의 대규모외외기동훈련이 실시된다고 하면서 주요훈련들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들을 공개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저들이 벌려놓은 전쟁불장난소동을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광고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을 감출수 없는 것처럼 연습을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전 기간 공격훈련으로 진행되며 특히 《북지역점령 및 안정화작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것이라고 이미전에 공개했듯이 《자유의 방패》는 철두철미 공격작전훈련들로 일관된 북침전쟁연습이다.

실지로 내외호전세력은 지금까지 《년례적인 훈련》이니, 《방어적성격》이니 하던 상투적인 가면마저 집어던지고 《방어단계》인 1부연습이 없이 《반격 및 안정화단계》라는 2부연습만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이것만 보아도 호전세력들이 북침전쟁의 불

을 지르지 못해 얼마나 안달이 나 하는가를 잘 말해준다.

특히 연합해병대사령부인 《쌍룡》의 규모를 확대하여 감행하려 하고있는것도 이번 연습의 최우선적 공격성을 명백히 보여주는것이다.

쌍룡훈련은 그자체가 공격훈련이다. 이번엔 내외호전세력은 《쌍룡》훈련을 병력 및 장비의 탑재, 해상이동, 사전연습, 《결정적행동》인 해안침투, 돌격, 상륙성공확대 등의 4단계로 구성하여 보다 공격적, 공격적성격을 띠고 진행하며 전 과정을 《북지역점령 및 안정화작전》을 기본으로 한 지상공격작전과 배합하여 강행하려 하고있다.

훈련의 규모와 투입된 병력, 무장장비들을 보아도 그렇고 더우기 3월말에 연합항공모함강습단훈련과 남조선미국일본미사일정비훈련도 계획

하고있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것을 보아도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예비전쟁, 북침전쟁시연회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현실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발자, 평화괴담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내외의 공정한 여론들은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라고 한결같이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러사는 전쟁도발자들의 종말이 어땠는가를 뚜렷히 말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고 숙고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활동군사연습 중단하라》

남조선 각계가 주장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 사회단체들이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얼마전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7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90여개의 해외동포단체들로 구성된 《정전 70주년 (한)반도평화행동》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한)미련합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중단하라》, 《전쟁날가 불안하다》, 《(한)미련합군사연습 당장 멈추라》 등의 구호를 들고 진행한 기자회견과 발표한 성명문에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

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이 《방어연습을 선포하고 공격과 성과확대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과거에 비해 군사훈련이 더욱 적대적으로 구성되고 동원병력도 확장되었다》, 《이번 훈련은 방어적훈련이 아닌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로총》 경상남도본부와 경상남도 《진보연합》, 6.15공동선언실천 경상남도본부도 경상남도청앞에서 《(한)미련합군사연습 중단, 윤석열 (정권)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반미, 반윤석열, 반전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려나갈 의지를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역적패당의 파멸은 시간문제이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내외의 단죄구단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민주로총》,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이 경제장성을 떠들어대지만 오히려 사회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해왔다. 《재벌들의 배반 불리위주 주인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은 버릴꺼에 내몰고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또한 윤석열역적패당이 권력기관의 주요요직들에 검찰총장신들을 들어앉히고 살벌한 공안탄압을 벌이며 《검찰공화국》을 만들어놓았다. 《사회가 (민들의 세상)으로 변화하였다》, 《민주주의가 검사독재의 칼날에 훼손되고있다. 윤석열의 무지막지한 (검사만능주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전례없이 후

퇴하였다》고 저주하고있다.

특히 《윤석열이 1년동안 (헌법) 위반과 야당 탄압, 민생 무시무시 (한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놓았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 1년도 되기 전에 (주권)을 일 본과 미국에 통째로 가져다 버렸다》고 단죄하고있다.

한편 《서울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각계층 단체들은 《윤석열이 북침전쟁 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며 조선반도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가고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땅에서 핵전쟁이 벌어질것이다》, 《전쟁광인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다》고 하면서 역적패당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을 반대배격하는 성토문, 기자회견, 거리시위를 비롯

한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과 경상남도,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도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사대배우행위를 규탄하는 집회와 규탄대회를 매일같이 벌리고있다. 집회와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이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안을 발표하여 피해자들과 주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일본에 간도 쓸개도 다 바쳤다》, 《조선반도재침야욕을 버리지 않고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에 동조하여 (주권)을 통째로 가져다 버렸다》, 《굴욕의극, 친일대국을 일삼은 윤석열은 을사오적보다 더한 매국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조선의 야당들도 《야소독재자, (검찰만능주의)의 윤석열을 다음해 (국회)의 원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고있고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윤석열과 그의 사당으로 전락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대중적인 반윤석열투쟁은 무지무능과 독선,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남조선을 헤어나올수 없는 파국과 재난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숙이 밀어넣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일환과 저주, 분노의 폭발이다.

집권 1년도 되기 전에 선행특혜자들이 집권기간 저지른 죄악을 추가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 민심의 저주와 배격을 받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그 배후인 머지않아 비참한 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리 기 영

남조선호전광들이 제 주재도 모르고 망신스러울것만 골라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것들이 《국방혁신 4.0》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 무순 5대 중점 및 16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국방혁신 4.0》에는 이른바 《북핵 및 미사일대응 능력》의 획기적인 강화를 최우선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신제타격체계인 《킬 체인》을 보충한 《킬 웹》이라는 작전개념의 도입과 《인공지능과 과학기술강군》육성을 비롯한 집다한것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국방혁신 4.0》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멋없이 늘어내고있는것이야말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력에

질긴한자들의 허망한 짓거리이다.

미국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려 간신히 명을 부지하고있는 역적패당이 상천인 미국도 공포에 떠는 초대강국인

들이 군사적적점과 파멸과 다름없는 무기들의 실상이 드러나 세계의 면전에서 개망신을 당한 역적패당이다.

남조선군이라는것도 군부부기피와 각종 범죄, 극도의

있는것은 미꾸라지가 뽀뽀를 구는것과 같은 해피한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역적패당이 《국방혁신》에 대해 운운하며 주재님게 놀아내는것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자들의 허세성격에 불과하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제 처지가 어떠한지, 상대가 누구인지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분별 못하고 군사적대결에 광불합속류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의 돌격대, 총알발의 신세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비참한 자멸을 앞당길뿐이다.

역적패당은 《윤석열때문에 전쟁나다. 까칠피 말라올예정》이라고 체치는 각종의 목소리를 이제라도 깊이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신 광 성

전쟁하수인들의 가소로운 《혁신》놀음

공화국과 힘으로 맞서보려 하는것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막지하며 《국방혁신 4.0》이라는것이 얼마나 허황한것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상천이 쓰다 버린 무기들과 그것을 모방하여 만든 병정들로서 그 무순 《대응능력》을 과시하려 하였다가 저

기강해이로 하여 오히려총의 무리, 합법적인 범죄집단, 허재비군대로 만인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더우기 군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미국의 용병에 불과한것들이 바로 남조선군이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이러한것들이 그 무순 《강군》육성에 대해 떠들고



말 말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 《출구없는 대결을 멈춰야 한다》

외세와 야합하여 대규모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하며 《평화를 만드는 남성회》 상임대표가 11일에 한 성토.

▷ 《국민은 귀가 막히는데 윤석열은 귀가 막혔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민심에 역행하여 《제3차변제안》의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안을 내놓은 역적패당의 친일 굴종행위를 규탄하여 11일 남조선의 한 야당인물이 한 말.

《리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리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은것이 매국의 역사인데 이 계보를 완벽하게 계승한것이 윤석열검찰과 시스템당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3월이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일본행각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이 성토했던 것이다.

너무도 엉뚱한 주장이고 평가이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은 그 무순 《3.1절기념사》라는 데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침략자에서 협력의 동반자로 변했다》고 떠벌이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일본전범기업대신 저들이 한다는 《제3차변제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이미전에 섬나라것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유사시(자위대)가 조선반도에 들어

독재권력의 거수기가 된 부패보수당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국민의힘》것들은 이번 새 지도부구성을 통해 내외에 저들이 《윤석열역적패당의 사당》으로 완전히 전락되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것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었다는 대표와 최고위원이라는자들이 모두 윤석열역적패당의 철저한 하수인들이기 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전에 진행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집권후 처음이고 특히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 내보낼 후보추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역도의 집권준비가 통치안정과도 직결되어있었다.

하기에 윤석열역적패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자기의 측근들로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지도부를 구성해 당을 장악해보려고 지난해말부터 《대통령》관저에 친윤석

열과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밀당을 벌리는 등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선거에 로골적으로 개입해나갔다.

한편 친윤석열과들은 저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야 윤석열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수 있다고 떠들면서 서로 물고뜯으며 역도에 대한 《총성경쟁》을 벌리었다가 하면 비윤석열과들은 《천성정치인》, 《국정운영의 방해군》, 《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로골적으로 몰아내고 배척하였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는 윤석열역적패당 그 측근들의 이러한 정치적음모와 전횡 그리고 당권장악을 위한 보수세력내부의 개싸움질에 산물이고 결과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새 상층부가 구성된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윤석열역적패당으로 재창당된것을 《윤석열이 권모술수로 여당지도부를 장악하였다》, 《룡산 (대통령실)의

친정체제로 전락된 여당》이라고 비평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였다고 하지만 보수당내부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이번 새 지도부선출에서 밀려난 비윤석열과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집권후반기 통치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이 《국회》의원선거후보추천과정에 비윤석열과들을 내쫓고 검찰 출신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면서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당권을 장악한 친윤석열과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의 《국정운영》에 방해로 되는자들은 다음이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로 추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윤석열과들을 로골적으로 위협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지난 시기 보수당내에서 있었던 2회의 《공천학살》이 재현될수 있다. 친윤석열과들의 독주로 밀려난 비윤석열과들

이 당을 뛰쳐나와 탄살림을 펼수 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지금 새로 당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것들이 《민생》을 위해 모든것을 집중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과 사리사욕에 환장한 정치사냥꾼들이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미사리구에 불과하다.

다리 부러진 노루 한쌍에 모인다고 민생과국을 초래한 리명백, 박근제장관들, 인간 쓰레기들, 민심을 등진자들의 소굴인 《국민의힘》이 당내에 빠진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펴리라고 기대하는것은 색은 닭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기를 바라는것과 같은 허망한것이다.

민심은 이미 윤석열역적패당과 역도의 《하청기관》인 《국민의힘》것들에게 짐을 싣고 등을 돌려대었다.

윤석열역적패당과 함께 《국민의힘》이 민심의 격랑에 부딪혀 침몰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전 명 진



제정신이 없어 남의 장단에 놀아나다가는 머저리가 되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법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추종하다 남조선경제를 파국의 진창속에 더욱더 깊숙이 치박아놓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두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역적패당은 미국주도의 《인디아태평양경제체제거리》, 《칩4동맹》 등에 가입하고 세계패권전략 실현을 위한 미국의 강권정책을 무조건 추종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대미추종정책은 수출과 수입물자의 대부분을 의존하고있고 년간 무역거래액도 작지 않은 주변국들의 경제침을 불리시키고있고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변국들은 남조선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자 말아야 한다, 쌍방관계에 악영향이 미칠것이라고 련일 압박

하면서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도 시사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내부에서는 현 경제위기가 미국의 《신냉전돌격대》, 《중미나팔수》로 자처해나선 윤석열이 초래한 필연적결과이다.

윤석열의 친미골중정책으로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되었다는 개탄이 터져나오고있는 것이다.

결국 역적패당은 경제협력 대상들을 적으로 만들어 경제보복을 초래함으로써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열간이 짓을 하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에 그토록 충성하면서 뺨부스레 가라도 얻어보려 하였지만 미국으로부터 받은것은 무엇이었던가.

지금 미국은 자국내에서의 제조업기반약화와 만성적인 실업률 등 복합적인 경제위

친미골중정책이 초래한 필연적결과

내맡겼지만 되돌아오는것은 미국의 맹대와 버림이고 《하루아침에 닭똥된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다》, 《미국발 경제폭풍이 불려나다》는 민심의 한탄과 비감뿐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대외경제환경악화는 역적패당의 친미골중정책, 식민지노예정착이 가져온 필연적결과이며 제것이런 아무것도 없는 수출추도형경제의 피해자 없는 수명인것이다.

자존을 잃으면 존박에 남는것이 없으며 남에게 기대어 사는자는 불피고 노예적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사대매국, 친미골중으로 경제를 파국에 몰아넣고 민생을 더욱 망쳐놓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민심의 라도대상이 된것은 응당하다.

본사기자 안 권 일